

젓더미 뚫고 피어난 나눔, 이웃의 눈물을 닦다



A씨 가정을 위해 지원한 전자레인지.



화재로 인해 집을 잃은 김씨에게 지원한 의류

40대 김모씨 가정에 지원한 청소기

40대 결혼이주여성 A씨에 대한 지원 소식입니다. A씨는 현재 3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시집와서 세 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지내왔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에 이은 알코올 의존증, 그리고 폭력까지.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참고 지내왔지만 더 이상은 안되겠다고 판단하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혼자서 세 명이나 되는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 많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늘 어려움을 겪으며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만성 우울증에 시달렸고 불면증과 대인 기피증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무릎을 다쳐 수술을 두 차례나 받는 등 근로 활동이 불가능해 현재는 기초 생계 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녀는 학교 폭력 및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자퇴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진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첫째는 어머니에게 신체적·심리적 문제가 있다 보니 집안 일과 어머니 돌봄, 그리고 동생들까지 거두면서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운동선수인데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 등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내는 아직 어려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등·하원을 첫째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첫째가 집안 일을 책임지고 있는

재능기부 스토리

위키 가구에 맞춤형 물품 지원

이주 여성·화재 피해 가구 가전·식료품 전달

데, 가장 힘든 게 가족들 식사 준비라고 합니다. 아직 어려서 반찬을 만드는 것도 힘들고 음식 조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와 쉽게 조리할 수 있는 간편식과 식료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이웃들 사업을 통해 식료품을 지원하고, 광주재능기부센터에서는 전자레인지 구입에 지원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큰 애가 도맡아서 늘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이번 도움으로 아이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이주 배경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소식입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은 '다문화가족의 자녀'만 아니고 '중도입국 청소년'과 '탈북 청소년'까지 포함하며, 한국 사회에 정착하거나 학업 및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한국어가 서투려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나이에 맞는 학년에 진학하지 못하고 우선 한국어를 배우는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 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체는 지원을 받지 못해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중 한 곳을 지원했습니다.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 청소년들을 응원합니다' 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 광주에서 거주하고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무언가 희망을 주고 응원을 한다는 의미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재능기부센터는 이주 배경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주 배경 청소년들 숫자가 지난해 기준 5200여 명인데, 대부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취득 예정이어서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언어교육, 기초학습·진로 설계, 청소년시설 연계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광주재능기부센터도 도움이 필요한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을 아ना나 가치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 광주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정입니다. 남자 한 분이 생활하던 가정인

데,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이 불에 타버려 실의에 빠졌습니

다. 구청의 도움으로 임시주거시설에 입주해 당장 잠자리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류가 모두 불에 타버려 당장 입을 수 있는 옷이 없는 상태였고,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조리 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류를 지원하고, 식사 해결을 위해 전자레인지를 구입해 전달해드렸습니다.

화재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김씨는 "우리 집이 불이 날거라고는 생각도 못해 봤는데, 화재로 모든 것을 잃게 되어버려 허망하기 그지없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막막함으로 잠도 못자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은 것 같다"고 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실의에 빠졌음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그나마 다치지 않은 게 어디냐"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재기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김 씨가 하루 빨리 안정적인 삶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40대 후반 김모씨에 대한 지원 소식입니다. 김씨는 현재 초등학생 자녀와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는 아이들이 어려울 때 합의이혼했고, 이후 김씨가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다보니 일을 하는데 시간적 여유

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이 잠든 시간대에 오토바이 배달을 해 생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경과가 좋아 퇴원하고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도중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학교와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이었고 김씨는 병원에 있는 시간 이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급한 연락을 받고 집에 가보았는데 전소가 되어 젓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전기적 문제였다고 합니다.

당장 기거할 곳이 없어 안심돌봄 주택에 입주하고, 그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초수급생계비로 생활하고 있는데, 살림살이 하나 없이 입주하다 보니 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소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기를 구입해 지원했습니다. 김 씨는 "빗자루로 청소하다 보니 깨끗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청소기가 있으니 집이 깨끗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김 씨가 화재로 인해 고생을 하고 있지만 자녀들과 함께 늘 행복하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장우철 광주재능기부센터 대표
▶문의사항 (기타 문의도 가능)
'광주재능기부센터, 나눔 N JOY'
전화 : 062-431-0918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주)호원테크

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주)호원테크는
설비기획,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78

☎ 062)940-8221 · FAX 0629-945-8415 / HP 010-3646-8311